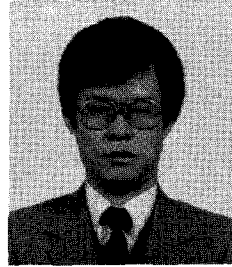


논단

신명나게 일하는 프로 설비인



서경선 <(주)우정엔지니어링 소장>

같은

장소에 똑같은 건물 열체를 지어놓고 프로 설비시공 대회가 열렸다. 설계도와 시방서 및 주요자재가 제공된다. 참가업체수는 회사규모, 실적, 재무구조 및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열개 업체가 엄선되었다. 심사위원은 설비업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심사항목은

1. 공기(예정공기 : 1개월)
2. 안전관리
3. 신공법 적용
4. 공사후의 미관
5. 운전 성능
6. 공사 원가

등으로 되어 있다. 전 참가업체(이하 팀이라고 함)에게 순공사비(예가)는 지급되고 우승팀에게는 순공사비의 100%가 우승상금으로, 준우승팀에게는 순공사비의 50%가 상금으로 지급된다.

회사의 사장은 구단주, 현장소장은 감독, 팀장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들 긴장된 분위기이고 눈들이 살아있다. 팀장과 사수, 조수들의 호흡이 척척 들어 맞는다. 자재과 직원의 동작도 재빠르다. 주요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운반하기 쉽게 정리해 놓고, 소모자재는 현장을 수시로 돌아 다니며 미리 파악해서 적시에 공급한다. 사수와 조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손발이 잘도 맞는다. 조수는 주요자재와 소모자재를 쓰이는 순서대로 준비해 놓고 툴툴이 공구들을 손질한

다.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한다.

한 팀당 평균인원 30명, 모두 300여명의 설비인들이 모였다. 그야말로 프로 설비인들이다. 힘들고 고달픈 줄 모른다. 무아의 경지에서 작업을 한다.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혼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현장에 활력이 넘치고 일하는 손은 마치 신이 들린듯 하다.

1개월여가 어느새 지나가고 드디어 하루 이틀 차이로 열개 현장의 모든 공사가 시운전까지 끝나고 남은 자재는 반납되고 공사 현장은 말끔히 정리되었다.

심사운전이 시작되었다. 운전은 정숙하고 소음도 적었으며 누수는 물론 수격현상도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설비가 살아 있었다. 어려운 심사끝에 우승팀이 결정되고 우승팀의 설비인들에게는 프로설비인의 칭호가 주어진다. 프로설비인은 모든 설비인들의 꿈이다. 우승상금은 우승팀 전원에게 골고루 배분된다. 이 설비시공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개발되며 설비부문은 선진국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이상의 시나리오는 물론 한번 상상해 본 가상적인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는 죽기직전까지만 알 수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잠깐동안 환희에 떨다가 두고 두고 고통스러운 환락과 즐거운

**“매일 하는 일(직업)이 고달프고 따분하다면
즐거운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
프로 스포츠선수나 프로 바둑기사들처럼
설비인들도 프로의 정신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태도가 중요”**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즐거울 수 없고,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없으며, 이웃이 고통으로 괴로워 하는데 나만 즐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하는 일(직업)이 고달프고 따분하다면 더더욱 즐거운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인생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취미가 있고 소질과 재능이 있는 분야로서 게임하듯 시간가는 줄 모르게 몰두할 수 있는 직업이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직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의 프로선수나 바둑의 프로기사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직업을 가진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승부의 세계는 짜릿한 것입니다. 이것을 때의 기쁨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으나, 비록 졌을 때라도 올분은 솟겠지만 따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투지를 불태우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앞의 가상적인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일 그렇게 게임하듯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설비인들은 프로선수들 못지않게 즐겁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뿌듯한 보람까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소유주다” 라고 말하듯이 사람마다 자기의

세계(그릇)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 뿐만 아니라 상상세계까지 포함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는 모든 사람과 공존하므로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상상세계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막히는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으며 커졌다 작아졌다 없어졌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상상세계는 그러나 언젠가는 현실세계로 나타납니다. 보잘것 없던 젊은이가 먼 훗날 어마어마한 재력을 뽐내며 끝없는 야망을 펼쳐보이는 실례들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는 바로 상상세계가 현실세계화한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상상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도 실현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라이벌(목표)을 정해 놓고 그 라이벌과 승부하여 이기는 것을 상상합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 목표는 달성되고야 맙니다.

우리 한번 인생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상상세계로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